

# Morning Meeting Brief

## Strategy

### [퀀틴전시 플랜]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서킷브레이커, 여전히 견조한 펀더멘털

-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셀은 매출 출회, KOSPI 서킷브레이커 발동
- 펀더멘털은 견조, 수급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
- 외국인 투매에 주도주 급락, 소비재 중심 차별화 장세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Quant

### [Soon to Know] 실적 시즌 AI 관전 포인트, 미국은 투자, 한국은 이익 속도

- 한국은 이익 추정치의 속도, 미국은 현금흐름 창출력에 민감
- 미국 어닝콜은 AI 투자 · 생산성에 주목 - 생산성 언급 전년 대비 1.7배
- 메모리 비용 · CAPEX 민감도 확대 - 다운사이클 우려는 시기상조

권순호. Soonho.kwon@daishin.com

## 산업 및 종목 분석

### [Earning Review] 삼성전자: 체급의 위력

- 대규모 성과급 총당금 인식 속에서도, 89.4조원의 호실적을 기록
- 자사주 매입, HBM 가격 인상 효과, 파운드리 추가 수주 등을 기대
- 목표주가와 매수의견 유지, 적극적 매수 접근이 필요한 시점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 [2Q26 Preview] 한국금융지주: 영업이익의 3조원을 향해

-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 상회하나 1분기 대비 감소 불가피
- BK점유율 체급 대비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 가파르게 상승, 실적호조
- 증권주 조정 지속, 동사 PBR 업종 평균 대비 하회, 최선호주 유지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 [2Q26 Preview] 미래에셋증권: 브로커리지와 평가이익이 견인하는 실적 호조 지속 (투자의견 Buy 상황)

- Space X 추가, 6월말 기준 공모가를 상회하여 평가이익 예상보다 ↑
- 브로커리지 1등 증권사, 관련 수수료수익 7,000억원에 육박할 전망
- 최근 조정으로 1.55x까지 낮아진 멀티플, 투자의견 매수로 상향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2Q26 Review] LG 전자: 2Q 도 예상을 상회, 호조! 로봇과 공조 사업 강화

---

- 2Q26 영업이익은 1.58조원(147% yoy)으로 호조, 컨센서스 상회
- HS(가전), MS(TV)에서 믹스 효과 및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은 예상 상회
- 2026년 피지컬 및 공조(HVAC) 사업 강화로 밸류에이션 확대 진행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

##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서킷브레이커, 여전히 견조한 펀더멘털

-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셀은 매물 출회, KOSPI 서킷브레이커 발동
- 펀더멘털은 견조, 수급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
- 외국인 투매에 주도주 급락, 소비자 중심 차별화 장세

###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셀은 매물 출회, KOSPI 서킷브레이커 발동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은 성과급에 따른 대규모 총당금 반영에도 불구하고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4조원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

다만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호재 소멸 인식과 셀은 매물 출회되며 삼성전자 주가는 급락. 이에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 위축되며 전반적으로 약세 전개. 또한 주도 업종의 급락은 위험자산 회피심리로 이어졌고, 기관, 전력기기, 피지컬 시 나란히 약세 이에 KOSPI는 장 중 낙폭 확대되며 서킷브레이커 발동. 올해 들어 6번째이자 역대 12번째 서킷브레이커로 최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시사. 현재 VKOSPI는 85.64%이며 이를 월간, 일간 변동성으로 환산할 경우 24.7%, 5.4%에 달하는 상황

### 펀더멘털은 견조, 수급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

국내 증시 급락 과정에서 펀더멘털 동력의 둔화 및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 오히려 펀더멘털 호조(실적 개선, 전망치 상향 조정, GDP 성장률 상향 조정 등)가 가시화되는 상황. 이러한 국면에서 수급에 의한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 여전히 실적, 매크로 장세이기 때문

지난 주말 KOSPI 7,300선에서 급반전 국면에서 금융투자의 3.3조원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그 전 외국인 선물이 5조원 이상 유입. 특히, KOSPI 7,300선은 선행 PER 6.3배 수준으로 금융위기 당시 저점(6.27배)에 근접한 수준. 극심한 저평가 영역이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상승 여력이 크고, 하방 압력은 제한적. 금일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후 반등 국면에서 기관, 금융투자 수급이 유입.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공백을 메워주던 금융투자 수급 유입된 점이 긍정적. ETF 매매에 따른 금융투자의 수급 유입이 지속될 경우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동시에 기존 상승 추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

### 외국인 투매에 주도주 급락, 소비자 중심 차별화 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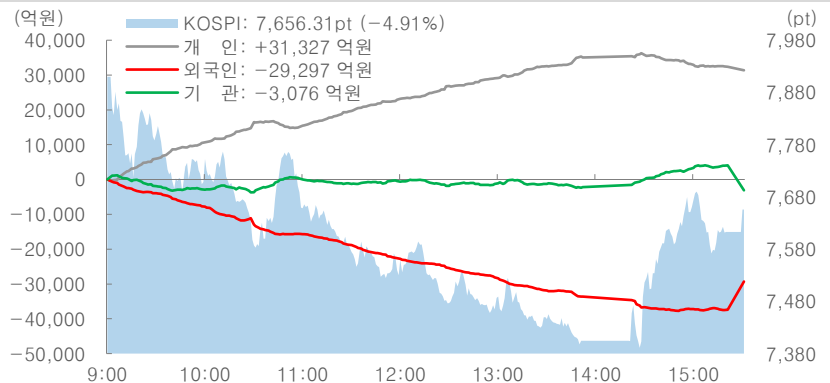
외국인 투매로 대부분 업종 약세 전개. 다만 소비자 업종 상승하며 차별화 뚜렷

**반도체:** 삼성전자(-6.9%), SK하이닉스(-6.1%), SK스퀘어(-9.3%)

**조선:** 한화오션(-22.7%), HD현대중공업(-5.3%), 삼성중공업(-5.3%)

**소비재:** 삼양식품(+11.3%), KT&G(+6.3%), 에이피알(+8.3%), 달바글로벌(+5.5%)

###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실적 시즌 AI 관전 포인트

## 미국은 투자, 한국은 이익 속도

- 한국은 이익 추정치의 속도, 미국은 현금흐름 창출력에 민감
- 미국 어닝콜은 AI 투자 · 생산성에 주목 – 생산성 언급 전년 대비 1.7배
- 메모리 비용 · CAPEX 민감도 확대 – 다운사이클 우려는 시기상조

## 이익, 투자, 현금흐름 – 민감도가 다른 한국과 미국

AI 확산 사이클에서 두 시장이 민감한 지점은 다르다.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관건은 설비투자의 정당성 확보이고,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수혜 업종의 이익 상승 속도다.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투자는 전례 없는 폭으로 늘고 있고, 그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국내 반도체 수출 기업의 이익과 마진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관심의 차이는 각 시장에서 아웃퍼폼해 온 팩터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증시는 투자자본 대비 현금이익의 규모보다 향후 벌어들일 회계적 영업이익이 커지는지가 추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향이 있었고, 미국은 이익 추정치의 상향보다 투자자본 대비 현금이익의 창출이 높은 수익률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했다. 누적된 시장 경험으로 미국 참여자는 현금창출능력에, 국내 참여자는 이익 상승과 상승 둔화 시그널에 민감하다.

## 미국의 CAPEX 확대 · FCF 축소, 한국의 이익 확대는 여전히 진행형

2026년 1분기까지의 실적과 투자계획, 자금조달 흐름은 큰 틀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미국 기업이 CAPEX 계획을 줄인다는 시그널은 아직 없고, 재원은 이익잉여금에 유상증자, 장기부채(회사채)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 추정치 상향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26년 2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차익실현(Sell-on) 매물이 출회되며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메모리 반도체 관련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익성과 CAPEX 당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국내 증시의 증익 기대와 연동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컨콜에서 확인할 것 – 하이퍼스케일러는 투자 정당성, 비-IT는 생산성과 비용

이번 실적 시즌의 관건은 CAPEX를 감당할 수 있는 이익 흐름의 가능성이 보이는가이다. 어닝콜에서 AI 관련 발화의 주된 흐름은 여전히 투자·비용·매출이다. 여기에 AI 수요측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AI 매출 언급이 늘어난다면 투자 흐름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2026년 1분기 콜에서 생산성 언급은 전년 동기 대비 1.7배로 늘었다. 다만 구체 수치를 동반한 생산성 발화는 7%에 그쳐,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산술적인 수치가 나오는지 지켜볼 단계다. 메모리 비용 언급 빈도도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다운사이클을 우려할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

## 최근 등락은 펀더멘탈 전망 급등 이후의 부수적 효과(Side Effect)라 판단

메모리의 주요 수요처가 몰린 미국에서 투자 당위성과 비용 언급이 늘고 있으나, 호실적을 확인한 상황에서의 매물 출회와 변동성 확대는 펀더멘탈 대비 싸지는 구간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매집 매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내재변동성 기준 월간 약 26%p의 지수 변동(1 표준편차)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임을 감안하면, 방향성 베팅보다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의 익스포저를 유지하는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

# 삼성전자 (005930)

##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 투자의견

### BUY

매수, 유지

## 6개월 목표주가

### 560,000

유지

##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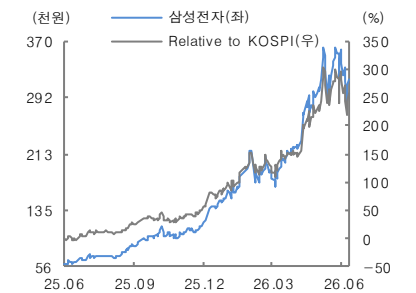
### 318,800

(26.07.06)

반도체업종

KOSPI	8051.33
시가총액	2,029,62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30.52%
자본금(보통주)	76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62,500원 / 60,4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1,492억원
외국인지분율	46.70%
주요주주	삼성생명보험 외 15 인 19.70% 국민연금공단 7.8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3	64.7	128.9	402.4
상대수익률	-2.0	11.5	28.7	90.6



## 체급의 위력

- 대규모 성과급 총당금 인식 속에서도, 89.4조원의 호실적을 기록.
- 자사주 매입, HBM 가격 인상 효과, 파운드리 추가 수주 등을 기대.
- 목표주가와 매수의견 유지. 적극적 매수 접근이 필요한 시점.

### 줄일 때가 아니라 늘릴 때다

대규모 성과급 총당금 인식 (10조 중후반으로 추정) 속에서도, 업계 최대 체급에 기반한 강력한 이익 체력을 재차 증명. 부문별 영업이익의 경우, DS 사업부 89.6조원 (메모리반도체 91.9조원, 비메모리반도체 -2.3조원), DX 사업부 -1.1조원 (MX -1.0조원, CE/VD -0.1조원), 삼성디스플레이 0.6조원, Harman 0.3조원으로 추정. 메모리반도체가 전사 실적 성장을 견인.

- 공급 제약 속, 실리주의적 영업 활동을 전개.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격적 가격 인상 정책을 펼쳤고, 오랜 관록이 업계 최고의 DRAM 가격 상승률을 견인. 성과급 총당금 제외 시, 메모리반도체 영업이익은 109조원에 달했을 것.

- DRAM의 경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추정. 가이던스와 기존 전망치 (전분기 대비 6% 상승)를 상회하는 수준. 초호황을 활용한 수익 극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비주류 제품의 전략적 재고 축소가 시행.

당사의 경우, 주가의 추가 상승을 전망. 3가지 변화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다 긍정적으로 만들 것. 목표주가와 매수의견 유지.

1. **자사주 매입 재개:** 성과급 총당금을 반영한 만큼, 임직원 성과급 보상 목적의 자사주 매입 재개 전망. 주가의 하방 강직성을 높일 수 있는 변화.

2. **HBM:** 2027년 HBM ASP는 전년 대비 91% 상승 전망. 고객과의 파트너십과 실리 (가격 극대화를 통한 이익 성장)를 적절히 취하는 수준에서 가격 정책이 시행될 것. 경쟁사 대비 ASP 우위를 기반으로 수익성 격차 축소할 것.

### 3. 메모리반도체 외 사업부문

1) **세트:** 경쟁 심화와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부담 심화로 적자전환. 로트과 같은 신사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노력 강화 전망.

2) **비메모리반도체:** 성과급 총당금 제외 시, 연내 분기 흑자전환이 가능한 구조. 흑자전환 시점은 성과급 정책 변화 속 뒤로 밀렸으나, 우호적 수주 환경이 마련. ASIC, Auto, 모바일AP, CPU 등 다방면에서의 신규 수주 기대.

###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300,871	333,606	744,777	976,298	1,020,803
영업이익	32,726	43,601	387,203	562,681	437,125
세전순이익	37,530	49,481	396,848	577,362	455,804
총당기순이익	34,451	45,207	300,740	421,474	332,737
지배지분순이익	33,621	44,261	299,853	420,587	331,980
EPS	4,950	6,564	45,453	63,965	50,489
PER	10.7	18.3	7.5	5.3	6.7
BPS	57,663	62,922	109,162	161,481	212,390
PBR	0.9	1.9	2.9	2.0	1.5
ROE	9.0	10.8	52.4	47.2	27.0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삼성전자,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한국금융지주 (071050)

박혜진

권용수RA

hyejin.park@daishin.com

yongsukwo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35,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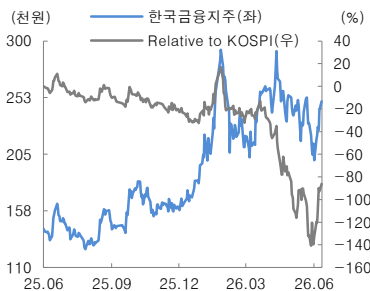
(26.07.06)

249,500

증권업종

KOSPI	8,051.33
시가총액	14,86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2%
자본금(보통주)	27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92,500원 / 125,3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49억원
외국인지분율	35.42%
주요주주	김남규 외 1인 21.30% 국민연금공단 13.2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2	16.0	42.7	87.7
상대수익률	2.6	-21.4	-19.8	-28.8



## 영업이익 3조원을 향해

-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 상회하나 1분기 대비 감소 불가피
- BK점유율 채급 대비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 가파르게 상승, 실적호조
- 증권주 조정 지속, 동사 PBR 업종 평균 대비 하회, 최선호주 유지

###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35,000원, 업종 내 최선호주 유지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2분기 순이익은 1분기 대비 감소가 불가피하나 대규모 평가의 없이 순수 채급으로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익 레벨을 시현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최근 지속된 조정으로 증권주는 수익성 대비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였는데, 커버리지 가운데 가장 높은 ROE가 예상됨에도 '26E PBR은 1.12x로 커버리지 평균 1.22x를 하회하고 있어 투자매력 높은 상태. 업종 내 최선호주 유지

### 2Q26 지배주주 순이익 7,835억원(QoQ -14.4% YoY +45.4%) 기록 전망

2분기 순이익은 컨센서스 6,995억원을 12% 상회할 것으로 전망. 거래대금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 2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90.3조원으로 1분기 대비 35.5% 증가하여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은 4,353억원(QoQ +38.7%, YoY +226%) 기록 예상. 동사는 최근 5년간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상승한 유일한 대형사인데, '21년 6월 9.3%에서 '26년 3월 13.3%로 4%p 상승. 이는 외국인 대상 DMA(Direct Market Access) 서비스 덕분인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한국투자증권과 신한증권이 유일하기 때문. 최근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양사의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상승에 기여

강점인 IB는 견조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올해 상반기 인수금융부문에서 12개의 딜, 총 주선액 1.9조원으로 업계 1위를 달성. 다만 딜 자체는 1분기에 집중되어 2분기 수수료수익은 1분기 대비 감소 예상. 관건인 트레이딩수익은 1분기 대비 감소가 불가피한데, 1) 분배금/배당금이 감소하고, 2) 금리가 상승하여 채권관련 손익이 부진할 수 밖에 없기 때문. 그러나 발행어음 잔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마진도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관련 수익은 양호할 전망. 밸류자산 리운용손익도 반도체 중심 지수상승이 지속되어 1분기 수준 이익(1,197억원) 기록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2분기 트레이딩손익은 3,5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32.1% 감소 전망

###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순영업수익	2,635	3,937	5,118	4,733	4,815
영업이익	1,199	2,345	3,279	2,854	2,895
당기순이익	1,033	2,020	2,628	2,287	2,317
YoY	46.1%	95.6%	30.1%	-13.0%	1.4%
EPS	17,689	34,598	44,998	39,155	39,685
BPS	166,581	205,667	226,265	254,899	283,011
PER	3.8	4.7	5.6	6.5	6.4
PBR	0.4	0.8	1.1	1.0	0.9
ROE	10.6	16.8	19.9	15.4	14.0

자료: 한국금융지주,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미래에셋증권 (006800)

박혜진

권용수RA

hyejin.park@dashin.com

yongsu.kwon@da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상향

6개월

목표주가

**62,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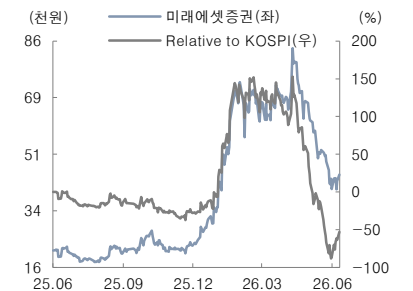
(26.07.06)

**44,750**

증권업종

KOSPI	8,051.33
시가총액	27,24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41%
자본금(보통주)	3,33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83,800원 / 17,713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832억원
외국인지분율	9.21%
주요주주	미래에셋캐피탈 외 19인 34.08% 네이버 8.5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0.7	-29.2	56.6	131.9
상대수익률	-19.6	-52.1	-12.0	-12.0



## 브로커리지와 평가이익이 견인하는 실적 호조 지속

- Space X 주가, 6월말 기준 공모가를 상회하여 평가이익 예상보다 ↑
- 브로커리지 1등 증권사, 관련 수수료수익 7,000억원에 육박할 전망
- 최근 조정으로 1.55x까지 낮아진 멀티플, 투자의견 매수로 상향

### 목표주가 62,000원 유지, 투자의견 Buy로 상향

최근 증권주 조정이 지속되어 업종 전반적인 Valuation이 상당히 하락한 상황. 동사는 상반기 대규모 평가익 반영에 따른 실적호조가 기대되어 증권주 가운데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였는데, 그래서인지 낙폭도 경쟁사 대비 컸음. '26년 포워드 PBR이 1.55x까지 하락한 상황. 우리는 동사의 지속 가능한 ROE를 감안한 적정 PBR 을 2.3x로 추정하는데, 전술한 요인으로 주가 하락하여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는 판단. 따라서 투자의견을 Buy로 상향 조정함

### 2Q26 지배주주 순이익 1,21조원(QoQ +21.9% YoY +201%) 기록 전망

2분기 순이익은 컨센서스 1,15조원을 5.8% 상회할 전망. 2분기 실적의 Key는 단연 Space X 평가익인데, 6월말 증가 170달러 기준 상장가 150달러보다 13.3% 상승하여 관련 평가이익 1,47조원 반영될 전망. 이에 따라 전체 상품 운용손익은 1,78조원으로 1분기 대비 18.4% 증가 예상

2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90조원으로 1분기 대비 35.5% 증가하여 브로커리지 점유율 1위인 동사의 관련 수익은 6,946억원(QoQ +30%, YoY +142%)으로 7,000억원에 육박할 전망. 자본시장 호조로 연금 자산을 비롯한 리테일 수수료수익도 1분기에 이어 당 분기에도 1,000억원을 상회할 것. 홍콩과 뉴욕을 필두로 해외법인 실적도 Space X 평가익 일부 반영됨에 따라 P수익 증가하여 실적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1분기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2,432억원 이었는데, 이 중 Space X 평가익 1,570억원 반영되었음. 2분기는 평가익 규모 증가하여 1분기보다 양호한 실적이 예상됨

구분	2025	1Q26	추정치	2Q26E			3Q26E		
				YoY	QoQ	Consensus	당사 추정	YoY	QoQ
순영업수익	1,004	2,016	2,399	139.0%	19.0%	2,126	1,424	87.2%	-
영업이익	500	1,375	1,679	235.4%	22.1%	1,583	885	297.1%	47.3%
순이익	403	996	1,215	201.2%	21.9%	1,148	679	99.4%	44.1%

자료: 미래에셋증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순영업수익	2,960	3,910	7,120	4,770	5,055
영업이익	1,159	1,915	4,721	2,624	2,780
당기순이익	889	1,580	3,494	2,047	2,162
YoY	210.1%	77.6%	121.2%	-41.4%	5.6%
EPS	1,467	2,716	6,177	3,725	4,051
BPS	19,993	22,979	28,469	32,393	36,782
PER	5.38	8.60	7.12	11.81	10.86
PBR	0.40	1.02	1.55	1.36	1.20
ROE	7.34	11.82	21.70	11.50	11.01

자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LG전자 (06657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40,000**

상향

현재주가

(26.07.07)

**189,10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 2Q도 예상을 상회, 호조! 로봇과 공조 사업 강화

- 2Q26 영업이익은 1.58조원(147% yoy)으로 호조, 컨센서스 상회
- HS(가전), MS(TV)에서 믹스 효과 및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은 예상 상회
- 2026년 피지컬 및 공조(HVAC) 사업 강화로 밸류에이션 확대 진행

###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240,000원 상향(50%)

연결, 2026년 2Q 매출은 23,830억원(14.9% yoy/0.4% qoq)과 영업이익은 1.58조원(147% yoy/-5.7% qoq)으로 호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1.06조원)을 상회. 일회성 이익(관세환급)을 제외하더라도 HS(가전)과 MS(TV 등)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추정을 상회한 것으로 분석. 특히 MS 부문의 영업이익은 2025년 연간으로 -7,509억원 기록 이후에 2026년 1Q에 3,178억원으로 흑자전환(qoq), 2Q도 2,534억원으로 개선 추정. 별도의 영업이익은 1.34조원(114% qoq/-2.9%)으로 추정(0.89조원)을 상회. 가전(HS), TV(MS) 등 전 사업부에서 양호한 성장으로 추정. LG이노텍의 수익성 확대도 연결 실적도 예상을 상회

2026년 주당순이익(EPS)을 종전대비 14.6% 상향. 투자의견은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240,000원(2026년 주당순자산(BPS) X 목표 P/B 1.65배(성장기 상단))으로 상향.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은 4.7조원으로 88.4%(yoy) 증가 추정. 2026년 AI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및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B2B 및 HVAC 등 신성장 사업도 순항 중으로 판단. 밸류에이션 및 신성장 확보에 초점 맞춘 비중확대 유지. 투자포인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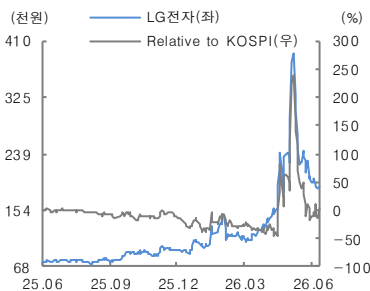
### 1Q26 영업이익은 1.58조원으로 147%(yoy) 증가 : HS, MS가 견인

2026년 2Q, 연결 기준의 매출은 23.83조원으로 14.9%(yoy/0.4% qoq), 영업이익은 1.58조원으로 147%(yoy/-5.7% yoy) 시현. 특히 영업이익은 가전(HS) 중심의 관세 환급이 반영되면서 추정과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 관세 환급을 제외하더라도 HS(가전), MS(TV 등) 부문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은 추정을 상회한 것으로 분석

HS(가전) 매출은 전년대비 9.3% 증가한 7.21조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 가전은 AI 기능 추가로 평균판매단가 상승, 프리미엄 및 가전 구독 비중이 확대 효과가 지속적으로 반영. MS(TV 등) 매출은 전년대비 15.8% 증가한 5.09조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5% 추정 등 예상을 상회. 신형시장에서 판매 증가, 스포츠 이벤트 관련하여 북미 시장에서 OLED TV 판매 증가, 원가 개선 효과로 분석

KOSPI	7656.31
시가총액	32,02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48%
자본금(보통주)	81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92,500원 / 72,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229억원
외국인지분율	28.62%
주요주주	LG 외 2 인 35.27% 국민연금공단 6.5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7.6	76.6	104.9	155.2
상대수익률	-33.5	26.7	21.8	2.0



(단위: 십억원, %)

구분	2025	1Q26	2Q26(F)				3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0,735	23,727	22,984	23,830	14.9	0.4	22,544	23,607	7.9	-0.9
영업이익	639	1,674	1,032	1,579	146.9	-5.7	1,058	936	35.8	-40.7

자료: LG전자,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